

월 크로우 베일 벗다...최고 구속 153km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일본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했다. 패배에도 마운드 새 얼굴들의 피칭이 기대감을 키웠다.

KIA가 27일 일본 오키나와 우라소에 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경기에서 1-5패를 기록했다. 전날 KT전에서 3-4 역전패를 기록했던 KIA의 연패지만 새 외국인 투수 월 크로우가 선발로 나와 성공적으로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크로우는 1회 첫 타자 아카하네와의 승부에서 유격수 박찬호의 좋은 수비로 유격수 땅볼을 만들었다. 2번 나가오카에게 좌전안타를 내준 크로우는 폭투 뒤, 하마다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았다.

미야모토를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크로우가 우치야마는 1루수 파울플라이로 잡고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2회에는 1사에서 중전안타를 맞았지만 유격수 박찬호와 2루수 서건창이 더블플레이를 합작해 주면서 크로우의 첫 실점은 2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1실점(1자책점)으로 마무리됐다.

29개의 공을 던진 크로우는 첫 실전부터 153km를 찍으면서 패조의 출발을 했다. 8개의 직구를 던

일본 야쿠르트와 연습경기서 2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1실점
"몸 상태 100%·수비 믿고 구종 시험"...루키 김민주 '삼자범퇴'

진 그의 평균 구속은 149km. 투심(8개·147~149km), 슬라이더(7개·134~139km), 커브(2개·131km), 체인지업(2개·137~138km), 스위퍼(2개·138km)도 구사했다.

크로우는 "아무래도 첫 경기였기 때문에 긴장감을 얼마나 조절하느냐에 중점을 뒀다. 이후에는 투구 리듬에 신경 썼다. 스피드가 잘 나와서 기쁘다"며 "몸 상태는 100%다. 경기적인 부분은 아직 90% 정도다. 정교한 제구, 주자 상황에 따른 경기 운영 같은 것은 80%이다. 연습경기를 하면서 채워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처음 타자들을 상대한 그는 야수들과도 첫 호흡을 맞췄다.

KIA 수비를 장점으로 꼽았던 그는 "싱커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직구나 다른 구종은 자신 있는데 싱커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 오늘도 싱커로 3개 정도 땅볼을 유도했다"며 "싱커를 던지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땅볼이 많이 나오는 구종인데 뒤에 좋은 야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대로 박찬호는 이날 좋은 수비로 크로우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박찬호에게도 새 외국인 선수의 구종, 구질을 파악하는 시간.

그는 "공이 좋았다. 다양한 구질을 다 구사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내야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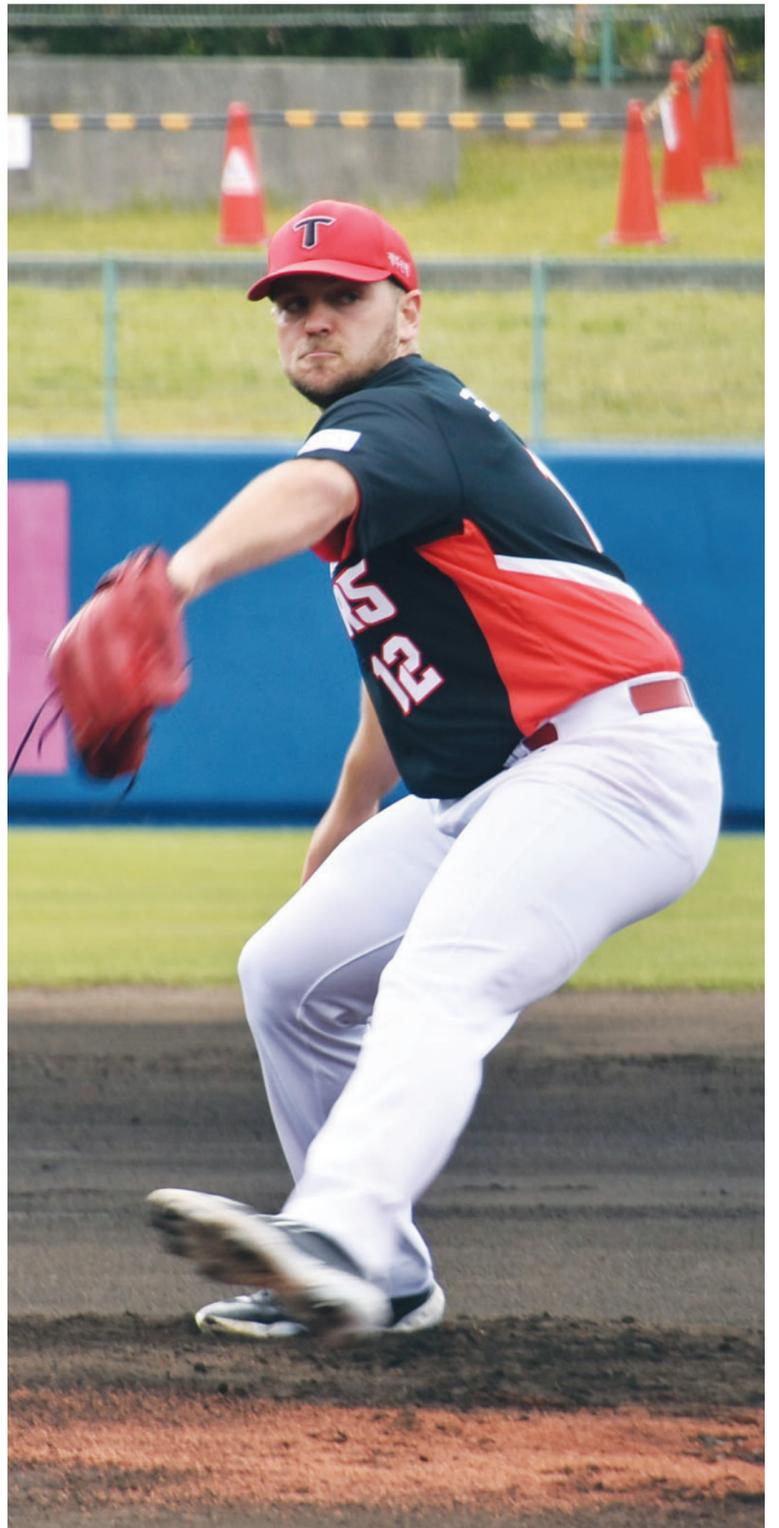
크로우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 경기 출장을 자청했던 '베테랑' 김태균은 "타자 들어오니까 볼펜 피칭때와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다. 2-3경기 정도는 빠르고 시범경기까지 더 보면서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체 홈백전에서 'KKK쇼'를 펼치며 눈길을 끌었던 우완 사이드암 '루키' 김민주도 캠프 첫 연습경기에서 삼자범퇴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신의 강점인 직구(6개)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피칭을 하면서 최고 144km를 찍었다. 슬라이더(4개·128~130km), 체인지업(4개·132~133km), 커브(1개·117km)도 선보였다.

김민주는 "초반에 긴장했는데 1구 던지고 나서 괜찮아서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했다. 풀아웃 승부가 있었지만 잘 안되면 내보내고 다음 타자랑 승부하자는 생각으로 던졌다. 연습경기니까 이럴 때 경험하는 것이다. 스피드는 겨울 때 합영에서 노력했던 것 같아 나오는 것 같다"며 "체인지업이 좋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다.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 잘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wool@kwangju.co.kr



27일 일본 오키나와 우라소에 구장에서 열린 KIA와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경기에서 KIA 월 크로우가 역투하고 있다.

이우성 순조로운 '1루수 변신'

다양한 상황서 안정적 수비 선보여

이우성(사진 왼쪽)이 '무주공산' 1루를 차지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KIA 타이거즈의 이우성에게 이번 캠프는 '도전의 시간'이다. 지난 마무리캠프에서 1루수 변신을 준비했던 그는 호주 캔버라 캠프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되고 있는 2차 캠프에서 실전을 하면서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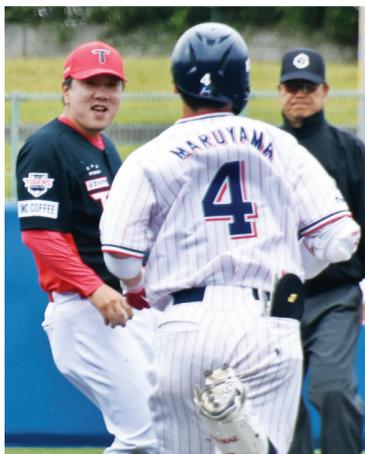
25일 KT 위즈와의 캠프 첫 연습경기에서 3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했던 그는 27일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경기에서도 4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첫 타석에서 3루수 송구 실책으로 출루한 이우성은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전안타를 기록했다.

수비도 깔끔했다. 1회말 2사 1·2루 상황에서 우치야마의 공이 1루로 높게 뛴고, 이우성이 잘 쫓아가 공을 잡아내면서 파울플라이로 이닝을 끝냈다. 3회에는 크로우에 이어 나온 윤중현의 첫 아웃카운트를 책임져줬다.

마루야마의 강습타구를 잘 잡아 직접 베이스를 밟으면서 박수를 받았다.

8회 수비 때도 이우성에게 찬사가 쏟아졌다. 1사



에서 미야모토의 타구가 1루 앞에서 높게 바운드됐지만 이우성이 침착하게 공을 잡아 베이스 커버를 위해 들어온 투수 김민주에게 넘겼다.

앞서 7회에는 번트 수비도 경험하는 등 이날 1루수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했다.

이우성은 전날 KT전에서 공격적인 주루로도 눈길을 끌었다.

5회 볼넷으로 출루한 뒤 이창진의 좌전 안타가 나오자 2루를 지나 3루까지 내달리면서 상대 외야진을 흔들었다.

이번 캠프 연습 기간 이우성이 최우선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비다. 안정감 있는 수비로 1루 변신에 이상이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우성은 "강한 땅볼이 왔는데 일단 한번 오니까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가까이에서 거리감을 한번 잡아보고 이 정도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본 하루가 됐다"며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다. 마지막 바운드 왔을 때 조금 더 다리를 움직여서 하면 좋았을 것 같다. 앞으로 빠르게 오는 것은 잡을 수 있는데 사이드로 오는 것은 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 번트 수비 같은 경우 내 것인 줄 알고 오케이를 외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투수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옆에서 찬호와 박기남 코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다. 지금은 수비 나가서 플레이를 하는 자체가 감사하다. 경험을 적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격도 소화할 수는 없다. 이우성의 포지션 변경 이유 중 하나가 그의 공격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우성은 "일본 투수들 공이 좋았다. 아직은 변화구랑 스트라이크존 이런 부분 적응이 잘 안된다. 더 나가봐야 할 것 같다. 투수 타이밍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wool@



"4년만에"

임성재, PGA 코그니전트 클래식 우승 도전...29일부터 한국 5명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코그니전트 클래식(총상금 900만 달러)이 29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리조트 챔피언스코스(파71·7147야드)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혼다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나 1982년부터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던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가 후원을 중단하면서 대회 명칭이 바뀌었다. 새 타이틀 스폰서인 코그니전트는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기업이다.

혼다 클래식은 2009년 양용은, 2020년 임성재(사진)가 우승하는 등 한국 선수들과 인연도 좋은 편이었다.

올해 대회에는 2020년 챔피언 임성재를 비롯해 김주형, 이경훈, 안병훈, 김성현까지 한국 선수 5명이 출전한다.

임성재는 올해 1월 더센트리 공동 5위가 최고 성적이다.

세계 랭킹 16위인 김주형은 이번 대회에 나오는 선수 가운데 로리 매길로이(2위·북아일랜드), 매슈 피츠패트릭(9위·잉글랜드)에 이어 세계 랭킹이 세 번째로 높다.

지난해 우승자 크리스 커크(미국)가 대회 2연패와 올해 2승에 도전한다. 커크는 이번 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1월 더 센트리에서 우승했다.

26일 끝난 멕시코 오픈에서 우승하며 한때 나이트클럽 경비원으로 일한 경력에 알려져 화제를 모은 제이크 넵(미국)도 출전한다.

PGA 투어는 이 대회를 시작으로 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발스와 챔피언십까지 계속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대회가 열리는 '플로리다 스왈'이 이어진다.

지난해 혼다 클래식에서는 코스 세팅이 파 70이였으나 올해는 파 71로 변경됐다. 작년 대회에서 500야드, 파 4였던 10번 홀이 올해는 530야드, 파 5로 바뀌었다.

3월 1일부터 사흘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는 LIV 골프 제다(총상금 2500만 달러)가 열린다. 이 대회는 앤서니 김(미국)의 복귀 무대로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연합뉴스



"3년 연속"

고진영, LPGA HSBC 월드챔피언십 3연패 시동...한국 12명 등 29일부터

고진영(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챔피언십(총상금 180만달러) 3연패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오는 29일부터 나흘간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클럽 탄중 코스(파72)에서 열리는 HSBC 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한다.

고진영이 재작년과 작년 대회에서 각각 시즌 첫 승을 안은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대회다.

2022년 고진영은 이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하고 통산 13승 고지에 올랐다. 당시 10개 대회에서 6차례나 정상에 오르는 등 초강세를 구가하던 때였다.

지난해 우승은 고진영이 "투어 14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승인 것 같다"고 자평했을 만큼 의미 있는 타이틀이었다.

당시 고진영은 손목 통증으로 부진을 면치 못한 데다 한국 선수들의 18개 대회 연속 '무관'이 겹치면서 공백이 더욱 도드라졌다.

3연패에 도전하는 고진영의 상황은 1년 전과 엇비슷하다.

고진영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톱 10 성적은 CPKC 여자오픈 준우승 한 차례였고, 시즌 최종전인 투어챔피언십에서 무릎 부상으로 대회 도중 기권했다.

세계랭킹에선 지난해 7월 말 1위 자리에서 내려온 뒤 현재 6위에 자리하고 있다. 고진영은 올 시즌 첫 출전이었던 지난해 혼다 타이틀랜드는 공동 20위로 마쳤다.

한국 선수로는 고진영을 비롯해 전인지, 김효주, 신지애, 양희영, 유해란 등 12명이 출전한다.

이 대회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8차례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7번이나 우승했다.

나머지 2018년 우승도 교포 선수인 미셸 위 웨스트(미국)였을 정도로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다.

2019년 박성현, 2021년 김효주가 정상에 오르고 고진영이 2연패를 달성하면서 4년 연속 한국 선수가 우승했다.

/연합뉴스